

'암체 운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경찰청이 1일부터 자동차 '엇갈림'이 심한 교차로 정제 때 진입하는 행위, 일명 '꼬리 물기' 등 암체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대상은 ▲교차로 꼬리 물기(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차량 끼어들기(범칙금 3만원) ▲오토바이 인도침범(범칙금 4만원) 등이 다.

일명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경찰청 오늘부터 집중 단속

광주 6곳·전남 14곳 대상

경찰이 유독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오토바이 인도 침범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단속하는 이유는 도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 꼬리 물기만 근절해도 주행 속도가 25% 증가하고 차량 연료비는 11% 감소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펼칠 장소는 몇 곳이나 될까. 광주지역 6곳과 전남지역 14곳 등 모두 20곳이다. 경찰은 최근 출퇴근길 교통량이 많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도심 주요 교차로 중 20곳을 선정했다.

광주지역 단속 장소는 ▲상무지구 KBS 앞 사거리 ▲광산IC 입구 사거리 ▲문화동 문화사거리~각화동 서광주 IC진입로 구간(이상 교차로 꼬리 물기) ▲제2순환도로 서창IC 진입로 ▲빛고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이상 끼어들기) ▲임동 오거리 인근 도로(오토바이 인도침범) 등이다.

전남지역은 ▲목포시 옥암동 해양항만청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 ▲순천시 연향동 여성문화회관 ▲나주시 성북동 성북사거리(이상 교차로 꼬리 물기) ▲목포시 석현동 석현 삼거리 ▲여수시 주삼동 석창사거리 ▲순천시 장천동 장천 사거리 ▲나주시 이창동 이창 삼거리 ▲광양시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이상

광주·전남지역 '암체운전' 집중단속 구간

교차로 꼬리물기 다발지역

-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KBS 앞 사거리
- ▲광산구 광산IC 입구 사거리
- ▲북구 문화동 문화사거리~각화동 서광주 IC진입로 구간
- ▲목포시 옥암동 해양항만청
- ▲여수시 서교동 한재 사거리
- ▲순천시 연향동 여성문화회관
- ▲나주시 성북동 성북 사거리

끼어들기 다발지역

- ▲광주시 서구 제2순환도로 서창IC 진입로
- ▲서구 빛고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 ▲목포시 석현동 석현 삼거리
- ▲여수시 주삼동 석창 사거리
- ▲순천시 장천동 장천 사거리
- ▲나주시 이창동 이창 삼거리
- ▲광양시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

오토바이 인도침범 다발지역

-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인근 도로 주변
- ▲목포시 옥암동 광운행사거리
- ▲여수시 서교동 서시정 주변
- ▲순천시 매곡동 북부시장 앞
- ▲나주시 성북동 중앙로
- ▲광양시 광양읍 우시정 마트 앞

끼어들기) ▲목포시 옥암동 광운행 사거리 ▲여수시 서교동 서시정 주변 ▲순천시 매곡동 북부시장 앞 ▲나주시 성북동 중앙로 ▲광양시 광양읍 농협 하나로 마트 앞(이상 오토바이 인도침범)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시외와 도심에 잇는 고속도로 또는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오토바이 인도침범 단속구역은 보행자와 이륜차의 통행이 잦은 시장이나 다방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간 접촉사고가 잦은 곳이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간·야간·심야 등 시간대별로 차량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 물기, 오토바이 인도침범 등 암체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별로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에 배치해 불합리한 교통 신호 등 민원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남서 40대 부부 숨진채 발견

해남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해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해남 5시계 해남군 현산면 A(46·건축업)씨의 집에서 A씨의 아내(48)

가 머리 등을 다쳐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도 새벽 6시계 집 근처 사무실 용 컨테이너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에

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아내가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아내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A씨 아내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운림동 증심사에서 열린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법회'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정부의 종교 편향 관련 동영상을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 사찰서 '종교 편향' 항의 법회

증심사 등 광주·전남 300여곳서도 열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법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전남 주요 사찰을 비롯, 전국 1만여개 사찰에서 일제히 열렸다. 불교계는 2일에도 전국 사찰에서 정부 규탄 법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불교계의 반향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경지동 조계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2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하나가 돼야 국가도 힘이 생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에 항의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이날 증심사 등 300여개의 사찰에서 정부 규탄 법회가 열렸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증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규탄 법회를 가졌다. 증심사 주지인 지장 스님은 법문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불교계와 정부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 뿌리내려 있는 불교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깃거리 무시하려는 천박한 행위"라고 말했다.

가칭 '광주불교인대책위'는 불교계의 법회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2일에도 광주·전남 사찰별로 규탄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여수 세계바람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글을 쓴 오현섭 여수시장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낮 12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경지동 조계사 대웅전 안에서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의 전법회를 가졌다. 증심사 주지인 지장 스님은 법문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불교계와 정부간의 간단한 문제가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농업 생산비 늘고 농산물 값 급락

"농민 생존권 보장해 달라"

전농 광주·전남聯 촉구

전농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농민생존권 보장 촉구 전농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을 하고 박준영 전남지사에 농민들의 요구서를 전달한 후 농기계 반납 투쟁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농민들은 비료·사료·기름값 등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

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농민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초부터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전남도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비료값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전남도는 전혀 대책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도에서부터 도움을 줘야만 지자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하버드 수상' 허위 기재 한나라 흥정욱 의원 유죄



한나라당 흥정욱(38·사진) 의원이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유학시절 '논문 3관왕'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으나 그중 1개가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흥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대상, 슬마 콤 라우디(최우등 졸업), 토머스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라고 기재해 배포했다. 그러나 흥 의원은 토머스홉스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홍보물에 수상 사실을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린 일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형량이 의의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흥의원의 의의직은 유지된다. /연합뉴스

옥돌 선물세트에 얼음만 가득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서 여성운전자들 상대로 백화점 납품용을 미끼로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 ○주부 이모씨(47)는 지난달 26일 밤 중 광주 북구 용봉동 사거리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옥돌 선물세트가 일부 남았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한 20대 남성 2명에게서 옥돌 선물세트 5개(개당 20만원)를 구입했다는 것.

○이씨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낸 이후 "상자는 옥돌 선물세트인데 안에는 얼음만 가득차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물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종은 건축·산업·지정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양 | 061) 337-0571

광주MBC 문화방송

황산 구화산 장가계

가장 빠르고 편한 직행 열차

다들, 대리비 고쳐주세요! '황산 구화산 장가계' 열차

장사(장가계) 10월 2일 ~ ₩ 749,000 (하루 1회 운행)

황주(황산) 10월 18일 ~ ₩ 629,000 (하루 1회 운행)

황산 - 구화산(불교성지) ₩ 849,000

상해, 황주, 소주 ₩ 499,000 (하루 1회 운행)

광주MBC 문화방송 | ☎062)226-6070